

바이든, 아프리카 마음 돌리기 안간힘

워싱턴서 49개국 정상회의

우크라 침공 리 따돌릴 외교전

72조원 투자 약속 환심 사기

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상대적으
로 우호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마음을 돌리기
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.

8년 만에 워싱턴DC에서 열린 '미국-아프리카
정상회의'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
하는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이어지
고 있다.

13일(현지시간)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
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49개국
정상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도자 50여 명을 14일
백악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주재한다.

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아프리카연합(AU)의 주
요 20개국(G20) 가입 환영 입장을 밝혔고, 15일
까지 이어지는 회의 기간에 아프리카에 향후 3년
간 550억 달러(약 72조원) 규모의 투자를 공약할
예정이다.

회의 첫날에는 동시다발적인 다양한 행사에 카
멀라 해리스 부통령,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,
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등이 총출동하기도
했다.

아프리카 국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런 노력
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최대 외교 목표가 된
마당에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중요한 포석이
라고 신문은 분석했다.

실제 우크라이나전의 여파로 일부 밀과 에너지
부족 등의 타격을 입었음에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
라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반
대하고 있다.

일부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러시아 경제에 부과
된 가혹한 제재가 우크라이나전의 외교적 해결을
더욱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.

여기에는 식민지배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주민
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옛 소련 시절부터 수십 년
간 이어진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오랜 우호
관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.

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고
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
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공
을 들여왔다.

한편 이번 회의는 중국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
큰 관심을 받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미국 쪽으로

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신문은
진단했다.

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천연자원의 공급처이자
자국 소비재를 판매할 핵심 시장으로 보고 있다.

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"아프
리카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의 미래에
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
륙"이라고 말했다.

그러면서 "아프리카와 공유하는 목적을 달성하
기 위해 미국 정부는 물론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
역량을 총동원할 것"이라며 "결정적인 시기가 될
향후 10년간 아프리카 각계각층과의 협력이 필수
적"이라고 덧붙였다. /연합뉴스



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(가운데)이 13일(현지시간)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프 루트문러 콩고민주공
화국 외교장관(왼쪽), 스탠리 카쿠보 짐비아 외교장관과 양해각서(MOU)에 서명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 회장 머스크 누르고 세계 최고 부자

베르나르 아르노(73) 루이뷔통모에헤네시
(LVMH) 회장이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
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(CEO)를 제치고 세계 최
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
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아르노는 현
재 순자산 기준으로 1천708억달러(약 222조원)
의 자산을 보유해 1천640억달러(약 213조원)의
머스크를 2위로 밀어냈다. 프랑스를 넘어 유럽 출
신이 전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한 것은 아르노가
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.

또한 아르노는 2012년 이 지수가 개발된 이후 1
위에 오른 다섯 번째 인물이다.

그에 앞서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, 마
이크로소프트(MS)의 빌 게이츠, 아마존의 제프
베이조스, 머스크 등이 1위에 올랐다.

그의 자산은 LVMH의 지분 41%를 가진 지주
회사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보유 지분 97.5%에서
나온다. /연합뉴스

美 무한 청정에너지 핵융합 점화 성공

‘인공태양’ 향한 첫 이정표 도달 “상업발전까지 수십 년 더 연구”

미국 정부가 무한 청정에너지로 기대되는 핵융
합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첫번째 이정표에 도
달했다.

핵융합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
식과 같아 ‘인공태양’으로도 불린다.

제니퍼 그랜홀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3일(현
지시간) ‘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(LLNL)
에 있는 핵융합 연구 시설 ‘국립점화시설(NIF)
의 연구팀이 지난 5일 핵융합 ‘점화’(ignition)를
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.

핵융합 점화는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 투입한
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으로 생
산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이에 성공하면 에너지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
도 핵융합 반응이 지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

있기 때문에 핵융합 연구에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
된다.

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수소의 원자핵과 전자가 분
리된 상태인 플라즈마를 만들고 이를 초고압 초고
온으로 가열해 원자핵끼리 융합하도록 해야 한다.

NIF에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들어 있는 BB
탄 크기의 금속 캡슐에 강력한 레이저를 쬐 내부를
초고압 초고온 상태로 만들어 핵융합을 일으키는
‘관성 가둠 핵융합’(Inertial Confinement Fusion)
방식을 연구해왔다.

NIF 연구팀은 지난 5일 실험에서 2.0메가줄
(MJ)의 에너지를 투입해 3.15MJ의 핵융합 에너
지를 얻어냈다.

‘줄’(J)은 에너지 및 일의 국제표준 단위로, 1J
은 1N(뉴턴·힘)의 단위로 1N은 질량 1kg인 물체
에 작용했을 때 가속도 1m/sec²로 움직이게 하는
힘을 말한다)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
만큼 움직이는 동안 하는 일 또는 그렇게 움직이는
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. /연합뉴스



베를린서 열린 이란 반정부 시위 연대 집회 13일(현지시간)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게
이트 앞에서 이란 '히잡 의문사' 반정부 시위를
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. 한 집회 참가자는 '사형집행과 고문을 멈추라'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
있다. 이란에선 지난 9월 20대 여성 한 명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연행
됐다가 사흘만에 의문사당한 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. /연합뉴스

뉴질랜드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

판매 영구 금지법 의회 통과

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앞으로 평
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흡연 규제 법
률이 13일(현지시간) 의회를 통과했다.

로이터·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의
새 법률은 2009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 담배
를 판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(약 1억2천
523만원)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.

새 법률은 연령이 아니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
삼고 있어 매년 흡연 규제 대상을 효과적으로 늘려
나갈 수 있다. 또 내년 말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하
는 매장 수를 현재의 10% 수준인 600개로 줄이고
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허용치도 감축하도록 했다.

이 법률 제정을 강력히 주장해온 아이사 베럴 장
관은 성명을 통해 "새 법률은 담배 없는 미래 세상
을 위한 진전을 가속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새 규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
로이터 통신은 부탄이 지난 2010년 담배 판매를
금지한 것을 빼고 뉴질랜드의 이 법률이 전세계
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일 것이라고 전했다.

뉴질랜드는 종전부터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쳐
성인 흡연자수가 최근 10년간 절반가량 줄었으며
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38개 회원국 중
성인 흡연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.

그러나 이번 법률이 소규모 매점을 말살하고 흡
연자들을 암시장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도 뉴질
랜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. /연합뉴스

美 검찰·금융당국, FTX 창업자에 법적 조치

8개 혐의 기소 최대 115년형 불법 선거자금 뿌린 혐의도

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한 샘 뱅
크먼-프리드(30)가 미국 검찰의 형사 처벌과 금
융감독 당국의 법적 조치에 직면했다.

이에 따라 뱅크먼-프리드는 수십 년의 징역형은
물론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커졌다.
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13일(현지시간)
뱅크먼-프리드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고 그를 8
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.

뱅크먼-프리드에게는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
킹을 이용한 사기, 돈세탁,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
의 혐의가 적용됐다.

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뱅크먼-프리드는
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검찰 측은 밝혔
다. 따라서 수십 년의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
인다고 AP통신은 전망했다.

13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뱅크먼-프리

드는 2019년부터 FTX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이는
음모를 꾸민 뒤 고객 돈을 가상화폐 헤지펀드 계열
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 빼돌려 이 회사의 채무와
지출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.

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고, 정치인들
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데에도 고객과 투자자
들의 돈을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.

뱅크먼-프리드는 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
해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치인들에게 많이 기부했
지만, 공화당에도 적지 않은 돈을 뿌린 것으로 전
해졌다.

전날 바하마에서 체포된 뱅크먼-프리드는 수도
나소의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이날
푸른색 양복 차림으로 현지 법원에 출석해 기소인
정 여부 절차를 진행했다.

미 정부는 조만간 바하마 측에 뱅크먼-프리드에
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다. 두 나라는
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지만, 본인이 이의를
제기할 경우 분국 송환까지 몇 주 이상의 긴 시간
이 걸릴 수도 있다. /연합뉴스

돈돈한 지키자

실손의료보험! 국민건강!

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!